

맹인 안내견에 대해서 (동물은 내친구)

홍 하 일

들어가는 말

동물은 내친구는 "인간과 동물의 상호 이익적인 접촉방법을 개발 보급하여 인간의 건강과 복지 및 동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슬로건 아래, 1) 인간과 동물의 유대(Human-Animal Bond)에 대한 연구 및 교육, 2) 사회활동견/치료견 활동의 개발 보급, 3)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견(맹인안내견, 청도견, 활동견, 치료견 등)의 육성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영리목적 아닌 자원봉사운동 차원에서 수행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맹인 안내견 사업은 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해준다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동물은 내친구」의 앞으로의 사업지표가 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인 안내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홍보를 위해 수의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맹인 안내견의 유래와 현황

먼 옛날부터 인간과 개는 서로 두터운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개들은 수렵견과 번견으로서 또 범죄 탐사와 인명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고독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 또는 치료자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었다.

이런 개의 성격과 능력을 제1차 세계대전후 독일에서 급증한 실명군인의 유도역으로서 활용하는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맹인 안내견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 뒤 맹인 안내견은 스위스, 미국, 영국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에서도 훈

련 육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1호 안내견이 육성된 것은 1990년부터로 그후 6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에서 약 10여마리의 안내견이 활약하고 있으며 삼성화재의 안내견 훈련학교와 이삭애견훈련소(수원)에서 안내견을 육성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약 10,000마리, 영국에서는 약 4,000마리의 안내견이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자 수는 약 21,500(등록된 시각장애인)이나, 관련자들은 약 22만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맹인 안내견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등급이 1등급인 시각장애인은 약 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중 개를 싫어한다든가, 너무 어리거나 노령인 경우 등 개인적인 문제와 안내견과 함께 할 수 없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안내견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500여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10여마리는 너무나도 적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안내견 보급은 수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맹인 안내견의 의의

안내견은 세계 20여개국에서 육성훈련되어 각각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해가며 시각장애자의 재활수단의 하나로서 또 인간과 개의 끊을 수 없는 고리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안내견을 육성

※ 우리종합동물병원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안내견 사업은 「시민에 의한 복지」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깊은 일이다.

맹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자의 「눈」을 대신하는 역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엮는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맹인 안내견 사업은 순수 자원봉사운동에 의한 비영리 사회사업으로, 참여자 개개인이 인간과 개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안내견을 만드는데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복지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내견협회는 안내견의 보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리의 안내견이 사회에 나가기 까지

계획적인 번식

안내견 육성사업은 강아지의 번식부터 노견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로 여러단계가 있다. 이런 여러 단계 중에서도 우선적인 일은 장래 안내견이 될 수 있는 우수한 강아지를 안정 공급하는데 있다. 안내견에 적합한 견종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독일 셰파드 종이다.

강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다. 부견, 모견이 과거에 낳은 강아지들중 몇마리나 안내견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안내견 사업의 선진국인 영구에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안내견의 혈통라인이 확립되어 성공률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 결과 70~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계획번식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들은 어느 기간동안은 형제들과 모견과 같이 지내지만 생후 6~8주가 되면 파피워커(양육봉사자)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 가정에 맡겨진다.

파피워킹(강아지의 양육)

안내견 육성의 성공에 있어서 선천적인 요소(혈

통) 뿐아니라 후천적인 요소로서 강아지 양육방법이 극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한 양육방법을 파피워킹시스템이라고 한다.

파피워킹 시스템을 요약하면 파피워커의 가정에 맡겨진 강아지는 가정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고 때로는 엄하게 훈나며, 커다란 그러나 절도있는 애정속에 양육하는 것이다. 즉, 번식 봉사자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는 생후 42~56일경에 안내견으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1세까지 일반봉사가정(파피워커)에서 키워진다. 앞으로 같이 생활하게 될 사용자(시각장애인)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단계로, 가정에서 길러지는 동안 여러가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사회의 룰을 습관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파피워커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은 맹인 안내견 사업의 의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최소한의 가족구성원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파피워킹에 필요한 지식이나 방법은 안내견 사업본부의 교육(Puppy Party) 등과 지원을 받는다.

「왜 훈련센터에서 키우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중요한 이유가 3가지 있다. 첫째는 인간은 신뢰해야할 존재라는 것을 강아지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하는데 이에 가족의 절도있는 애정과 꾸짖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파

*** 파피워커의 조건 ***

1. 충분한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양육할 것.
2. 가족 전원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
3. 사용자의 눈으로써 약 10년간 일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친구'로써 상냥함과 충실함이 필요하다.
4. 실내에서 양육-사용자와 안내견은 일체감이 필요함으로 같이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이다.
5. 어떤 생활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가정이 우선적이나 독신이 아닌 최소한의 가족구성원을 갖는 가정일 것.

파피워킹의 최대 목적이다. 둘째, 안내견은 모르는 사람, 차, 소음 등에 놀라지 않고 익숙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아지 때부터 여러가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좋은 안내견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세번째, 시민 모두에게 안내견 사업을 이해시키고 동참시키기 위해서이다. 강아지와 파피워커가 중심이 되어 안내견의 이해자가 좀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피워커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내견의 적성평가

파피워커에게서 돌아온 개는 안내견으로써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 적성평가는 파피워킹 기간에도 수시로 이루어져서 양육과 앞으로의 훈련의 기초자료가 된다. 훈련전의 적성검사는 꼼꼼하게 3주간에 걸쳐서 개의 성격과 성능, 체격 등을 실제 보행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인간에 대한 호감도, 소리에 대한 감수성, 집중력, 작업의욕, 공격성, 복종성, 걷는 태도 등 36개 항목에 걸쳐 체크한다. 이런 기준하에 적성이 있다고 판단된 개는 피입수술을 받아 훈련이 개시된다. 적성검사에서 탈락한 개는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진다.

안내견의 훈련

안내견으로서 주인(시각장애인)으로 부터 요구되는 것은 「진행상의 장애물을 피해지나갈 것」, 「교통 신호 교차로, 문을 발견해주는 것」 그리고 「비록 주인의 명령이 있다해도 위험이 따를 때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등 극히 복잡 다양하며 고도의 훈련방법이 요구된다.

안내견의 훈련은 식사와 배변 등 규칙적인 생활기초훈련 이외에 시각장애자로 부터의 요구와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복종훈련, 유도훈련 그리고 불복종훈련(자율훈련) 등이 담당 안내견 훈련사에 의해 실제 도로에서 약 7~12개월간 실시된다. 이 훈

련을 극복한 개는 당초의 약 50~70%가 된다.

1. 복종훈련

주인의 명령에 개가 정확하게 따르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본격적인 안내견 훈련을 받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말로 개가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다. 결국 주인과 개의 관계를 말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복종훈련에는 앉아, 엎드려, 발옆에 붙어서, 직진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등이 있다. 흔히 훈련은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놀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복종하게끔 하는 Positive 방법이 선호되는데 이는 개가 주체성을 가지고 기뻐하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다.

2. 장애물 피하기

장애물 피하기 훈련을 개가 보도, 차도 등의 장애물을 피해서 지나가는데 주인이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쪽으로 장애물이 오도록 피하는 법을 가르친다.

장애물에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 「움직이는 장애물」에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물론 통행인 즉, 인간이지만 개는 인간을 장애물로서 인식하기가 꽤 어려워하므로 피하는 훈련은 몇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한편 「움직이지 않는」 장애물에는 발밑과 머리위의 물건이 있다. 개는 비교적 발밑을 주의해서 걸으나 높은 곳은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 예를 들면 나무가지라든지 차양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도로에서 개에게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한다.

3. 적설훈련

개가 훈련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따라서 쌓인 눈에 의해 매일 변하는 도로상황에 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동결된 노면에서 사용자가 넘어지는 등으로 인해 동절기에 있어서 개의 심리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눈길에서의 훈련은 중요하며 어떻게 해서든 체험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불복종훈련(자율훈련)

앞으로 가자고 명령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면 스스로 알아서 거부한다든지 주인이 위험에 처하려 할 때 주인을 밀어낸다든지 하는 등의 자율성 훈련을 말한다. 요약하면 「OK」명령이 있어도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개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어려운 훈련이라 생각한다.

5. 공공시설, 교통기관 이용 훈련

보행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다면 그것으로 괜찮을 수 있으나 공공시설이용 등의 경우는 주위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아무리 현명해서 응용력이 좋은 개라고 해도 예견되는 상황을 훈련하지 않으면 실제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공공시설과 승차훈련을 하는 것에는 안내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깊은 이해는 안내견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공공시설 이용훈련]

보행에 관련된 건물, 역, 시청과 회관의 로비, 지하도 등 넓은 장소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해서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는 보행과 행위(음식물 등에 유혹이 있기 때문)의 훈련을 실시한다. 또 다방이나 레스토랑도 경험시킨다.

[교통기관 이용훈련]

교통기관 적응은 처음에는 협회의 차에 지도원과 함께 타고 차내에서 지도원의 발밑에 엎드려 있게 하는 것을 체험시킨다. 이에 적응하면 그 차에 모르는 사람을 하나둘 태워서 결국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탈 것에서 훈련시킨다. 최종적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을 경험시킨다.

[행위훈련]

안내견의 행위훈련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하나의 동작, 걸어다니는 모습, 우아함, 외관, 표정, 청결감 등 보행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서 일반사람들

에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앉아」라는 명령에 ‘착’하고 앉은 개보다는 조용하게 ‘삭’하고 우아하게 앉는 것이 좋다. 또 의자에 앉을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옆에 붙어서 앉는 등의 행위에 대한 훈련을 말한다.

[눈가리개 훈련]

개는 지도원이 알지 못하는 새에 갑자기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즉, 명령(말)에 의해 처음으로 반응해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원의 일정한 동작이나 버릇 등을 보고 예상해서 동작해 버리는 경우이다. 눈가리개 훈련은 이같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발견시 즉시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훈련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훈련(보행지도)

기초훈련을 마친 개에 대해서 지도원은 자신이 눈을 가리고 실제로 걸어본다. 그리고 세심하게 최종적인 평가를 한다. 이런 최종평가에 합격한 개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공동훈련에 들어가는데 이 공동훈련을 보행지도라 한다. 시각장애인이 훈련소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는 4주간, 출퇴근 하는 경우에는 5~6주간 실시한다. 이 기간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의 사용법과 사육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공동훈련은 지도원, 시각장애인 그리고 파피워킹과 훈련에 의해 탄생된 안내견의 3자가 서로 신뢰의 고리로 묶여지는 공동작업이다.

1. 하네스 보행

개와 훈련생과의 보행지도 전에 지도원이 개 역할을 하여 훈련생을 리드하여 개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다. 동시에 개를 대하는 명령, 꾸짖음, 칭찬을 말과 동작으로 배우게 해준다. 또 사람에게 따라 실명으로 교통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교통질서와 도로상황 등도 가르친다.

2. 안내견과의 만남

입소해서 3일째부터 우선 개의 특징, 성격, 이름, 파피워커의 이름 등을 설명해주고 예비지식을 가지

게 해준다. 그후 안내견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이제부터 긴시간, 사용자의 눈이되고 마음의 친구가 될 개와의 첫 만남이다.

3. 보행감각, 리듬

4일째부터 개와의 보행이 시작된다. 개의 주인은 지금까지는 지도원이었으나 이제부터는 훈련생(사용자, 시각장애인)이 된다. 그러나 개는 새로운 주인에게 아직 신뢰가 가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균형을 무너뜨린다거나 필요 이상의 힘으로 하네스를 다룬다거나 하면 개로서는 부담이 되므로 그 부담을 최소한으로 적게 해주도록 지도원이 이끌어준다.

처음에는 지도원이 하네스 외에 따로 목줄을 해서 주인의 명령,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서 반응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원이 중간에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개와 훈련생의 신뢰가 깊어짐에 따라 지도원의 역할이 서서히 작아지도록 보행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조 목줄을 통해 훈련생이 개와의 보행감각과 리듬을 익히게 해주는 과정이다.

4. 단독보행

제2주째 부터는 지도원의 보조목줄에 의한 개입없이 안내견과 훈련생만의 단독보행에 들어간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훈련을 하면 보행능력은 더욱 커지므로 잡음이 없고 신경이 흩어지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훈련한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횡단한다거나 방향전환 또 지하철과 사람이 많은 좁은 보도 등으로 점차 훈련을 진행한다. 그의 식사, 배변, 손질 등의 안내견의 관리는 물론 개가 병에 걸렸을 때의 판단과 처치방법, 안내견과 안내견협회 등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사후지도(Follow up)

사용자와 안내견이 완벽한 상태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되기에는 협회에서의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 지

금부터 사용자가 자기지역에서 안내견과 같이 생활하게 되므로 주위 주민의 깊은 이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도원이 현지에 가서 follow up하는 것이다.

1. 보행지도 종료 직후

우선 보행지도 종료후에 3일 정도에 걸쳐서 사용자가 사는 곳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쇼핑과 우체국, 은행, 병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3~4곳의 보행코스를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훈련한다. 또 동물병원과 상점 등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하는 계몽활동도 지도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2. 첫눈이 쌓였을 때

눈은 주위환경을 변하게 해서 개와 사용자의 보행이 불안하게 되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눈이 왔을 때 지도원이 현지에 가서 follow up한다.

3. 그외의 Follow up

현지에서의 정기적인 follow up 이외에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한 지도와 사용자의 직접 전화문의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해준다.

안내견을 사용하는 한 시각장애인은 「하네스(안내견에 장착하는 유도구)를 통해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을 잃었을 때 다시 실명한 것 같이 느꼈다」라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안내견의 존재는 대단히 의미가 깊고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안내견의 은퇴

안내견은 안내견 훈련소를 떠나 10년여를 사용자에게 그의 눈으로, 마음의 친구로 존재한다.

이제 안내견은 자신의 하네스를 다른 안내견에게 넘겨주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안내견에서 은퇴한 개는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자원봉사자의 가정에 입양된다.

맺는말

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수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수의사가 되어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환자를 만나기를 어언 9년.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수의사란 무엇인지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업초기에는 같은 시기에 개업한 젊은 수의사들과 우리들의 뜻에 관심을 갖으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서로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소동물수의사로서의 비전을 살펴본다는 나름대로의 치기어린 열정으로 소동물임상연구회(현 한국소동물병원협의회 전신)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회원 모두가 소동물 임상의 학술보급과 동물병원 형태와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 개인은 우리의 이같은 노력도 결국 이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 축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의사의 사회적 인식이란 결국 수의사가 상대로 하는 동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여만 하는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음속을 헤매던 저는 '인간과 동물'이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단체를 알게 되었고 저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Delta Society를 비롯한 세계 20여개국에서 참가하고 있는 국제 단체인 IAHAIO(Internatio-

nal Association of Human 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와 맹인안내견협회, 청도견협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며 얻은 결론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생각(물론 나름대로의 판단일 수 있겠지만)은 '동물은 인간과 인간을 여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이며, 동물이 인간과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했을 때 비로소 동물의 권리도 높아진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구현은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유대란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고 보급하는 일, 인간이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한 동물매개활동과 동물매개요법의 개발과 보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여여주는 서비스견(맹인안내견, 청도견, 휠체어견 등)의 육성과 보급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여럿이 함께 한다는 자원봉사운동의 활용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작은 신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의 이러한 뜻에 동조하시는 여러 수의사 동지들과 회원을 모아 「동물은 내친구」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앞세에 불과하지만 「동물은 내친구」의 생각과 모색이 한 개개인의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8,000여 수의사 동지들과 같이 함으로써 수의사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감히 기원해 봅니다.